



| 보도   | 2023.7.4.(화) 조간 | 배포  | 2023.7.3.(월)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은행감독국<br>건전경영팀  | 책임자 | 팀 장          | 김재갑 | (02-3145-805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선 임          | 김민호 | (02-3145-8052) |

## '23.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### 1. 개 요

- '23.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37%**로 전월말(0.33%) 대비 **0.04%p 상승\*** [전년 동월말(0.23%) 대비 **0.14%p 상승]**

\* 4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(전월말 대비) :

('20.4월) +0.01%p → ('21.4월) +0.02%p → ('22.4월) +0.02%p → ('23.4월) +0.04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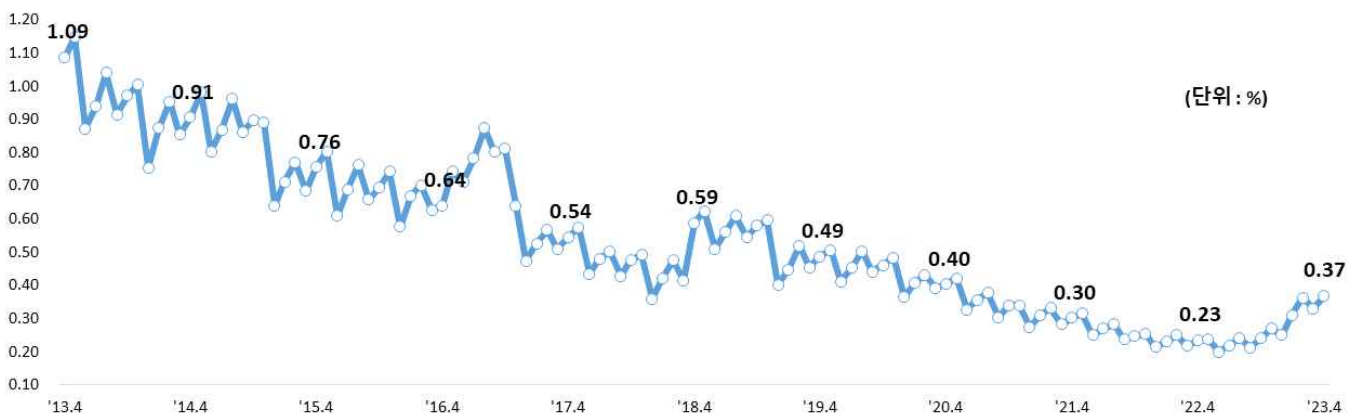
- '23.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\*(1.8조원)은 전월 대비 **0.1조원 증가**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\*(0.9조원)는 분기중 상·매각 미실시 등으로 감소(△1.5조원)

|                    | ('21.4월) | ('22.4월) | ('22.11월) | ('22.12월) | ('23.1월) | ('23.2월) | ('23.3월) | ('23.4월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 : | 1.1      | 0.9      | 1.4       | 1.6       | 1.9      | 1.9      | 1.7      | 1.8      |
| 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 :    | 0.6      | 0.5      | 0.8       | 1.9       | 0.6      | 0.8      | 2.4      | 0.9      |
| 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 :    | 0.5      | 0.4      | 0.6       | △0.3      | 1.3      | 1.1      | △0.7     | 0.9      |

- '23.4월중 신규연체율('23.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3.3월말 대출잔액)은 **0.08%**로 전월(0.08%)과 유사한 수준\* [전년 동월(0.04%) 대비 **0.04%p 상승]**

\* 신규연체율(%) : ('22.4) 0.04 → ('22.12) 0.07 → ('23.1) 0.09 → ('23.2) 0.09 → ('23.3) 0.08 → ('23.4) 0.08

###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## 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3.4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39%)은 전월말(0.35%) 대비 0.04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28%) 대비 0.11%p 상승]
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09%)은 전월말(0.09%)과 유사한 수준 [전년 동월말(0.22%) 대비 0.13%p 하락]
 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46%)은 전월말(0.41%) 대비 0.05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29%) 대비 0.17%p 상승]
    - 중소기업인 연체율(0.51%)은 전월말(0.45%) 대비 0.06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37%) 대비 0.14%p 상승]
   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41%)은 전월말(0.37%) 대비 0.04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9%) 대비 0.22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4%)은 전월말(0.31%) 대비 0.03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8%) 대비 0.16%p 상승]
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1%)은 전월말(0.20%) 대비 0.0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1%) 대비 0.10%p 상승]
 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7%)은 전월말(0.59%) 대비 0.08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35%) 대비 0.32%p 상승]

###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| 구 분     | 연체율 시계열<br>('13.4월~'23.4월) | '20.4월 | '21.4월 | '22.4월<br>(A) | '23.3월<br>(B) | '23.4월<br>(C) | 증감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전년동월<br>(C-A) | 전월<br>(C-B) |
| 기업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0   | 0.40   | 0.28          | 0.35          | 0.39          | 0.11          | 0.04        |
| 대기업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2   | 0.39   | 0.22          | 0.09          | 0.09          | △0.13         | 0.00        |
| 중소기업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57   | 0.40   | 0.29          | 0.41          | 0.46          | 0.17          | 0.05        |
| 중소법인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74   | 0.55   | 0.37          | 0.45          | 0.51          | 0.14          | 0.06        |
| 개인사업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6   | 0.23   | 0.19          | 0.37          | 0.41          | 0.22          | 0.04        |
| 가계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9   | 0.19   | 0.18          | 0.31          | 0.34          | 0.16          | 0.03        |
| 주택담보대출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20   | 0.12   | 0.11          | 0.20          | 0.21          | 0.10          | 0.01        |
| 가계신용대출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48   | 0.33   | 0.35          | 0.59          | 0.67          | 0.32          | 0.08        |
| 원화대출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40   | 0.30   | 0.23          | 0.33          | 0.37          | 0.14          | 0.04        |

\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### 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'22.6월 역대 최저수준(0.20%)을 기록한 후 상승 추세에 있으나,

○ 이는 코로나19 기간중 기준금리 하락 및 정책지원 등으로 장기추세 대비 하락했던 연체율이 글로벌 통화정책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측면

○ 현재 은행권의 연체율 수준\*('23.4월말 0.37%)은 코로나19 이전('20.1월말, 0.41%) 보다 낮고, 과거 장기\*\* 시계열(0.78%) 대비로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은행은 견조한 자산건전성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

\* 연체율 추이(%) : ('20.1) 0.41 → ('21.1) 0.31 → ('22.1) 0.23 → ('23.1) 0.31 → ('23.4) 0.37

\*\*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'10년~'19년 기간중 연체율 월평균

※ 국내은행의 연체율('23.4월말 0.37%)은 미국('23.3월말 상위 100대 은행, 1.29%) 보다 낮은 수준이며, 부실채권비율('23.3월말 0.41%) 기준으로도 미국('23.3월말 상업은행, 0.72%) 및 유럽('22년말 111개 주요 은행, 2.28%)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□ 은행의 연체율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당분간 현재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,

○ 이러한 연체율 추이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·매각 확대 등 건전성 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